

# 한국보건환경의 기둥

김민영(金旻永) 원장 - 3 -

박 창 근

〈본회 고문/한국환경보호협회의 회장〉

### 3. 일의 보람으로 산 김민영 원장

현재, 필자가 관여하고 있는 ‘한국신문기자연합회’의 일로 지난 2월 초, 김민영 원장을 만났다. 김 원장의 직장(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강남이고 택이 강북이라, 강남에 낯선 필자는 강북을 만날 장소로 청했다. 그래서 광화문 교보문고의 1층, avenue에서 만났다.

오랜만에 만난 김 원장 이었지만, 옛날과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유쾌하고 적극적인 성품 그대로다. 우리는 광화문의 그 유명한 낙지를 먹고, 차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는 며칠 전 불탄 ‘송례문’의 안타까움에서 시작하여, 필자의 일 그리고 김 원장의 오랜 공직생활 중 기억이 남는 보람된 일에 이르렀다.

사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수장으로 크게 기여한 보람은 뭐니 뭐니 해도 서울시의 대기질 문제일 것이다. 특히, 1986 아시안게임, 1988 서울올림픽경기의 성공적 개최에 필수조건인 쾌적한 대기질 유지를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각 경기장의 환경실태에 대하여 측정 조사 연구해, 서울시의 대기오염으로 기록이 저조했다는 말은 듣지 않은 것이 큰 보람일 것이다.

그리고 미사리조정경기장의 조류성장으로 물의 점도가 높아져, 이의 제거방안이 문제 되었는데, 이에 관한 효과적인 algae control방안을 개발하여 제시한 것 등은 88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한 편린이 될 것이다.

또 1992년 환경측정망 TMS시스템구축에 분산처리방식을 환경 분야 최초로 도입 채용함으로써 1993년도 후렛카드 솔루션가이드북에서 시스템 기동률과 확장성 등에서 우수시스템으로 선정 게재되었을 때 일 것이다.(현재도 가장 우수한 환경관리전산시스템으로 인정되어 국내외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필수 견학 및 시찰코스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다고 한다.)

2000년 미군의 포름알데히드 무단 방류사건이후 서울시 9개 지천에 대하여 매일 채수하여 25개 항목에 달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현재까지도 지점을 축소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도 보람일 것이다. 또 2001년 황산염환원균을 이용한 도시쓰레기(자원회수시설의 후라이 애쉬와 하수처리시설의 슬러지)처리방안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여 서울시에 명의 이관과 미국특허를 취득한 것은 보람의 영광이고, 수도권 광역 대기질 개선협회의 의결사항으로 67개에 달하는 수도권 대기측정망의 통합TMS구축사업을 우리 연구원 주도로 하여 성공적으로 개통하였고, 현재는 126개 측정소가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측정데이터를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보건환경연구원 중 용역 없이 자력으로 화학, 생물학, 의학 분야에서 국제 분석인정기관(KOLAS)으로 최초로 인증 받아 예산절약과 함께, 526개 항목이라는 국내 최다항목 인증기관으로 2006년 12월 KOLAS우수시험기관으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으로부터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은 것은 김 원장의 저력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대기문제 전문가로 보건문제의 수장답게, 김 원장은 서울시민의 건강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서울의 지하철역 234개 역사에 대한 7년간의 라돈농도결과를 이용하여 국내 최초로 라돈분포를 나타낸 라돈지도(Radon map)와 실내 생활환경의 라돈농도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김 원장의 노력은 서울시의 차 없는 날 행사 실시에서 행사 전에 비하여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변화율이 각각 6.4% 및 7.6% 줄어 든 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보도한 것은 치밀함의 결과고, 도로물 청소가 미세먼지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고 열섬현상 완화현상을 정량적으로 산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정 목표인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이루기 위하여 맑은 서울추진본부의 시책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서울시 대기중 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을 통한 미세먼지 특성조사연구'에 가장 중요한 조사,

측정 및 분석을 담당하여 추진한 것 등은 김 원장의 공적이고 보람이 아닐 수 없다.

국제적으로도 오사카환경과학연구원과 함께 한일 Joint symposium을 매년 개최하여 메가시티환경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교류를 통하여 많은 지식기술과 이론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한 것은 김 원장의 혜안이 아닐 수 없다.

김 원장은 말한다. "인생에서 얻는 최고 최대의 상은 '보람 있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 라며,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일은 즐기면서 하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모든 일과 사물을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보는 것, 사람과의 만남을 매우 중시하고 또 좋아하는 것, 시작한 일에 몰두하는 습관과 일에 대한 Priority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옳은 말이고, 서울시민 더 나아가 환경인의 한 사람으로 고마운 말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 보람 있는 일에 열정을 쏟아주길 부탁하고 헤어졌다. (㉔)



국제협력단(KOICA) 대기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한 연수원과 기념 촬영한 김민영 원장(중앙)